

- 주요 뉴스: 미국 1월 소비자물가, 40년 만에 최고치, 금리인상 속도 빨라질 가능성
 -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, 7월초까지 1%p의 금리인상을 지지
 - 중국 1월 신규 은행대출, 사상 최고 수준, 당국의 경기부양 의지가 반영
 - 일본은행, 금리상승 억제력을 위해 10년물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통화긴축 강화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
주가 하락[-1.8%], 달러화 상승[+0.2%], 금리 상승[+9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1월 소비자물가 급등과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매도 증가
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0.2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 등이 영향
유로화가는 보합, 엔화는 0.4% 절하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고물가 지속 가능성 등으로 '19년 8월 이후 최고치
독일은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'18년 이후 최고 수준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00.9원, +3.4원) 0.3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2/10일	2/9일	전일대비			2/10일	2/9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504.1	4,587.2	-1.81%	국채 금리 10y	미국	2.03%	1.94%	9bp
	유럽	472.35	473.33	-0.21%		독일	0.28%	0.21%	7bp
	중국	3,485.9	3,479.9	0.17%	CDS 5y	한국	27bp	27bp	0bp
	일본	27,696	27,580	0.42%		중국	53bp	51bp	2bp
	한국	2,771.9	2,768.9	0.11%	위험 지표	EMBI+	-	405	-
환율	달러지수	95.69	95.49	0.21%		VIX	23.91	19.96	19.79%
	유로화	1.1428	1.1425	0.03%		WTI유	89.88	89.66	0.25%
	엔화	116.01	115.52	-0.42%	원자재	구리	461.8	460.3	0.33%
	위안화	6.3541	6.3627	0.14%		금	1,826.9	1,833.4	-0.36%
	원화	1,196.5	1,196.5	0.00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1월 소비자물가(CPI), 40년 만에 최고치. 금리인상 속도 빨라질 가능성

- 같은 달 CPI는 전년동월비 7.5% 올라 1982년 이후 최고 수준. 전월비 기준으로는 0.6% 상승하여 작년 12월과 동일. 근원 CPI는 전년동월비 6% 상승하여 40년 만에 최고치. 이번 결과는 에너지 가격 상승, 공급 병목, 수요 증가 등에 기인
- 항목별로는 중고차, 음식료, 에너지 부문이 상승을 주도. 바이든 대통령은 연말에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. 하지만 Capital Economics는 경기회복과 수급이 팽팽한(tight) 노동시장 등으로 단기간 내 물가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
- 시장에서는 연준이 적극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가 발신.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'19년 8월 이후 처음으로 2%를 넘어섰고, 2년물 금리도 1.6% 상회하며 '19년 12월 이후 최고치. 선물시장에서 3월 0.5% 금리인상 가능성은 50%를 상회
- Nomura의 Aichi Amemiya는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과 임금인상 증가 압력 등을 고려할 때,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발생한다고 해도 연준은 시장 예상보다 더욱 강력하게 금리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, 7월초까지 1%p의 금리인상을 지지

- 블라드 총재는 1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자신이 매파적인 성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해당 의견을 피력. 7/1일 포함 3번의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, 이는 한 번은 0.5%p, 두 번은 0.25%p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미

■ 유럽위원회, '22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

-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, 에너지 가격 상승, 공급 차질 등을 이유로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(4.3%→4.0%). 금년 인플레이션 전망은 대폭 상향(2.2%→3.5%). 다만 인플레이션은 금년 여름 이후 둔화되고 내년에는 1.7%에 그칠 것으로 예상

■ ECB, 역내 은행들의 자기자본은 전반적으로 충분한 수준

- 연례 조사 결과 역내 115개 은행들의 팬데믹 사태에 대한 대응력, 자기자본 등은 양호하다고 평가. 다만 6개 은행은 자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진단

■ ECB 부총재, 인플레이션이 2% 수준에서 정착되면 금리인상 필요

- 데 쿼도스 부총재는 역내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, 주요 중앙은행들이 동일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.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적인 공급병목이 완화되면 역내 인플레이션은 장기 추세에 근접할 것이라고 언급

■ 중국 1월 신규 은행대출, 사상 최고 수준. 당국의 경기부양 의지가 반영

- 해당 대출은 전월비 3.98조위안 증가하여 12월(1.13조위안) 대비 3배 이상 증가. Pinpoint 자산운용의 Zhiwei Zhang은 은행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경기둔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

■ 일본은행, 국채금리 상승 억제를 위해 10년물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

- 10년물 국채 금리가 0.25%를 상회하면 무제한 매입에 나서겠다고 발표. 이는 금리상승과 대출비용 증가 방지가 목적. 스미토모 자산운용은 일본은행이 10년물 국채금리의 0.25% 이상 상승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고 진단

■ 인도 중앙은행, 주요 정책금리 동결. 완화적 기조 유지

- 정책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레포 금리와 역레포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4.0%, 3.35%로 동결. 현행 주요 자산매입프로그램도 지속하기로 결정

■ OPEC, 금년 원유 수요는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확대될 전망

- 금년 원유 수요는 전년 대비 일일 415만배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면서 글로벌 GDP는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. 한편 이날 BP 등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에너지 가격이 장기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2/10 현지시각 기준)

- 2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(만건): 22.3, 전주(23.8), 예상치(23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2/11 현지시각 기준)

- 호주 중앙은행 로우 총재 강연, 연준 통화정책보고서
- 미국 2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, 독일 1월 소비자물가 및 도매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의 서비스물가 상승, 연준의 긴축정책 강화를 유도할 전망 - WSI

(Inflation Surge Will Leave a Mark)

- 미국 1월 소비자물가의 큰 폭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폭. 향후 공급망 충격 완화 등으로 상품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수는 있으나, 서비스물가 상승률(4.1%)이 '9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
- 서비스물가는 임금의 영향이 크므로 공급 차질이 해소되어도 기존의 상승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기는 어려울 전망.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연준의 적극적인 긴축 노력은 시장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될 소지

■ 신흥국의 부채조정,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할 필요 - Financial Times

(Why countries should restructure debts sooner rather than later)

- 과거 사례로 보면, 개도국의 부채 조정 지체는 성장,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. 아르헨티나의 경우 부채 구조조정의 실패 이후, 신규 국채발행이 난항을 겪고 정상적인 대외무역도 어렵게 되는 등 관련 악순환이 반복
- 반면 에콰도르와 벨리즈 등에서는 부채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, 국채발행이 가능하고 경제적 비용이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. 이에 신흥국에 대한 무리한 부채상환 요구보다 절절한 부채조정을 통해 자생할 수 있는 경제 여건 확보가 중요

■ 세계 자산시장, 고물가 현상의 장기화 가능성을 제시 - Financial Times

(Inflation tracker: latest figures as countries grapple with rising prices)

■ 미국 연준, 점진적 긴축 전환으로 경기침체를 예방할 필요 - 블룸버그

(Despite Inflation Surge, the Fed Should Keep Steady)

■ 미국 주택매입 부담 심화, 주택가격 및 모기지 금리 상승 등에 기인 - WSI

(U.S. Housing Affordability Worsen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